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전후 간호학생들의 자아실현 비교연구*

박 후 남 · 최 영 애**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교육이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한 마디로 '인간형성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함종규, 1976). 이는 교육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간을 보다 바람직하게 만들어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하는 동시에, 보다 이상적인 상태로 발전시키기 위한 작용임을 말한다. 즉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삶의 질을 고양시켜 주는 것이고, 인간 삶의 의의는 남과 더불어 서로 주고받으며 타인 또는 사회에 공헌하는데 있다고 한다(Louise & Jessie, 1977).

대한간호협회 특별위원회(1993)에서 간호대학의 교육철학과 신념에 대하여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을 보면, 교육은 문화유산을 전수하고 교양 인으로서의 인성개발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기능을 가진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간호란 돋는 행동으로서 인간상호간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봉사적인 기능으로 주어지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이므로 간호사들은 성숙된 인격을 바탕으로 적절한 자아의 유지와 상승을 위해 역동적이며 능동적인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하는 자아실현을 향한 노력이 필요하다(엄미란, 하양숙, 1993).

또한 훌륭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자신과 세계를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보아야 한다(Kelly, 1962). 자기 자신의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평가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각을 가지고 자아실현에 도달하는 사람은 외부의 어떠한 자극이 들어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최정훈, 1971).

그러므로 간호교육자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 잠재력을 발달시키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발달단계 및 심리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간호교육자의 역할 중 하나는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확고히 하기 위한 심리 사회적 성숙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하양숙, 1994).

* 본 연구는 1998년도 순천청암대학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순천청암대학 간호과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은 각 개인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자각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봉사하는 경험을 가짐으로써 인격적 성장을 가져옴과 동시에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마슬로우는 여러 가지 욕구단계 가운데 자아실현을 존재가치의 실현이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봉사는 봉사를 하는 자신뿐 아니라 봉사를 받는 모두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고 자아를 실현하는 귀중한 삶의 체험기회를 제공한다(양창삼, 1997).

대학생 사회봉사 활동은 자아실현, 공동체 살리기, 사회변화에 부응하고 사회변화를 이끄는 능동적 역할, 대학교육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 대학생들이 제대로 된 시민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 원만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교과과정의 운영, 교과내용의 개편, 시민교육에 대한 연구, 이를 조직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는 대학의 의무이며, 학생의 권리이다(주성수, 199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실현은 교육이 지향하는 주요 목표중의 하나이며, 또한 사회봉사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인 동시에 자아실현 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교과목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경험에 그들의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봉사 경험 전·후의 자아실현정도를 파악한다.
2. 사회봉사 경험 전·후의 자아실현정도를 비교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사회봉사경험 전·후의 각각의 자아실현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4. 사회봉사관련 의견을 파악한다.

2. 용어의 정의

(1) 사회 봉사

사회봉사(또는 자원봉사는 같은 의미로 사용함)의 이론적 정의는 '특정한 요구의 인식하에 사회적 책임감의 태도를 가지고 금전적 이득에 대한 관심 없이 또한 기본적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동할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는 '일 대학에서 1 학점 2시간의 교양선택으로 운영되는 사회봉사 교과목으로서 사회봉사를 시작하기 전의 이론교육 2 시간, 토요일에 3시간씩 격주로 5회 시행되는 지역사회 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방학기간 중 1 일 4시간씩 연속 5일 동안 실시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중 사회봉사 이론교육과 지역사회 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경험'을 말한다.

(2) 자아 실현

인간의 기본적 성향으로 자기의 내면적 핵심을 수용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본질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더 '완전한 상태로 기능'하려는 것이다(Maslow, 1970).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로는 Shostrom (1966)이 개발한 인격적 지향검사(Personal Orientation Inventory)를 기초로 김재운, 이광자 (1983)가 제작한 자아실현검사에 의해 측정되는 점수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봉사

(1) 사회봉사의 의의와 필요성

사회봉사(social service)는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 인간봉사(human service) 등 여러 가지 말로 사용되고 있다. 자원봉사란 "특정한 요구의 인식 하에 사회적 책임감의 태도를 가지고 금전적 이득에 대한 관심 없이 또한 기본적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동할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라고 정의했다.

자원봉사의 대가 또는 동기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즉,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이득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 다른 사람을 돋는 행동은 자기자신의 생활을 실제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상호간의 생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반응적 행동이 자원봉사의 근원이 되었다. 그 외에도 자원봉사활동은 지도력훈련, 학교의 학점취득, 직업 기회의 탐색, 사회적 지위의 획득, 취업을 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또는 강한 개인적 동정심 등의 이유들로 인해서 동기화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들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개인적 목적들을 성취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목적을 향해 노력하고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역시 홀륭한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다(조희일, 1998).

자원봉사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 거의 유사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발성, 복지성 또는 공공성, 무급성 또는 무상성, 민간활동이라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태영, 1982).

선한 인간성의 상실과 도덕성의 붕괴는 그 사회의 위험신호이다. 그것은 개인들의 이기적인 발상과 집단이기주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것들을 치유하면서 건전한 사회를 이를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인간 목적관을 가치관으로 정착시키는 일이며 그 시급한 구체적 방법은 우리 모두가 봉사의 체험을 쌓아 가는 일이다. 가장 소망스러운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은 인간목적관인 것이다. 그 인간목적관을 가장 빠르고 바르게 실시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봉사정신의 생활화이다 그 정신을 소외시킨 종교는 무의미하며 봉사의 의지와 신념을 갖추지 못한 교육은 인간성 회복과 성취에 이바지 할 수 없다(김형석, 1994).

대학생 사회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다음 4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주성수, 1997).

첫째, 자원봉사 활동은 자기실현의 일이다. '자기 실현' 이야기로 인간의 기본요구중 가장 고차적인 욕구이다. 현대인은 물질문명의 풍요로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는 크게 모자람

없이 충족하고 있는 상태이나 사랑, 존경, 자기실현에 대한 욕구면에서는 날로 갈증이 더해 가는 추세이다. 물질문명의 진전에 비해 사랑, 존경, 자기실현 등 비물질 문화의 발전이 뒤쳐진 결과, 공동체 사회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지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김영호, 1990).

둘째, 자원봉사 활동은 '공동체 살리기 운동'이다. 자원봉사 활동은 먼저 스스로 '사회적 존재'임을 깨우쳐 남과 더불어 나누는 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운동이다.

셋째, 대학은 사회변화에 부응하면서도 사회변화를 이끄는 능동적인 역할을 해내야 한다. 이는 대학의 '사회적 사명감'이다.

넷째, 마지막은 대학교육 개혁의 필요성 때문이다. 대학의 사회봉사 활동은 상아탑적 고립주의 교육의 틀을 깨고 대학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리고 사회를 이끌기 위한 '인간 자본'을 육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2) 사회봉사활동의 현황과 과제

1990년대에 들어와 우리 사회는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서 제도화시키려는 움직임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전인교육의 측면에서 미국의 봉사학습개념을 도입하여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자원봉사활동의 결과를 내신성적에 반영하고 대학입학 전형에까지 반영하도록 이미 제도화하였다. 따라서 전국의 수십만의 중, 고등학생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봉사 현장에 나서게 되었다. 또한 대학에서도 자원봉사교과를 필수화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한양대, 동덕여대, 대구계명대, 포항 한동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들이 자원봉사활동을 교양선택 또는 필수과목으로 자원봉사활동 과목을 개설, 전담교수를 배치하고 있다. 건국대는 이미 1994년부터 교내에 '자원봉사활동은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자원봉사의 철학과 목적 그리고 의의와 필요성을 포함하는 현대적인 자원봉사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기반이 확립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조희일, 1998).

우리의 사회봉사가 보다 바른 정신 아래 시행되고,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양장삼, 1997).

첫째, 앞으로 사회봉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이념과 강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 사회봉사활동은 인간의 공동복지를 향한 가치이념이자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발적, 협동적, 실천적 노력이다. 이 일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가정과 사회를 제대로 기능 하도록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엮는 일이다.

둘째, 자원봉사정신(volunteership)의 극대화이다. 우리의 의식 속에 복지사회를 구현하려는 시민의식이 성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봉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해야 한다. 정신의 구현 없이 방법에만 치중한 봉사활동은 죽은 봉사일 뿐이다.

셋째, 자원봉사의 생활화이다. 자원봉사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사회봉사활동이 진정으로 활성화되려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봉사정신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 그것을 실생활에서 제대로 구현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넷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회 교육적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생활의 근거지인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인 활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린 시절부터 생활방식으로 몸에 익혀 자발적인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육훈련은 가정교육을 기초로 중고교 대학의 학교교육과정과 기업 및 각종 단체들의 사회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서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화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일회성 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한다. 이 활동이 보다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올바로 지도하고 육성하기 위한 전문요원 양성과 연구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 교육의 효과와 봉사의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연구개발하고, 학과와 전공에 접목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여섯째,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한국인의 세계화이다. 우리는 '나'를 한국인다운 한국인으로 만들어야 하며, 나아가 지구촌의 한국인으로 육성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이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유엔 및 국제사회는 비정부단체와 비영리단체의 국제적 봉사활동에 의존해 가고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김민정(1998)은 자원봉사 활동 후에 자아존중감,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한영란 등(1999)은 간호대학생의 사회봉사활동 후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봉사활동이 사회성과 이타적 태도를 증진시키며 이기적 태도 중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2. 자아 실현

자아실현 이론을 구체화시킨 사람은 마슬로우이다. 인간은 무한한 긍정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것을 유지시키거나 상승시키려는 경향을 갖고 있고, 또한 자기의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경향을 자아실현이라고 한다(Maslow, 1974).

인간이 타고나는 거의 무한히 풍부한 가능성은 현실화하는 과정이 자아실현이며, 넓고, 깊고, 높은 경험으로서의 자아실현은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다.

인간의 욕구체계에서 생리, 안정, 소속, 인정 등의 욕구는 자아실현 욕구와 구분해서 하위욕구 또는 부족욕구이다. 이에 비해서 자아실현의 욕구

는 자유, 개성, 성취, 창조, 조화, 의미, 선, 진, 선, 미 등을 포함하면서 상위욕구 또는 성장욕구를 이룬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찾고 싶고, 알고 싶고, 느끼고 싶은 욕구이다. 말하자면 더욱 더 인간적으로 성장하려는 욕구 또는 더 인간적인 존재이려는 욕구이다. 그래서 마슬로우는 그것을 존재욕구라고 부른다. 그 욕구의 충족은 포만감이 아니라 어떤 성장감, 황홀감, 개오감이다.

자아실현자, 곧 자아를 실현해 가는 사람은 스스로가 동물적 존재인 동시에 또한 인간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의 가능성의 실현이 인간의 조건임을 안다. 그리고 어느 처지에서건 그의 앞에 활짝 열려있는 가능성의 세계를 믿고 또 전망한다. 그것은 자신이나 남이나 인간에게는 풍부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과, 개척해 가고 실현해 갈 수 있는 풍요한 가능성의 세계가 있음을 믿는 것이다.

자아실현자는 인간의 삶에는 작고, 큰 여러 비운, 비극이 있다는 가능성을 외면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무” 또는 “비존재”를 수락하고 그 속에서 삶에의 도전감과 의미를 찾으려 한다. 어차피 인간은 시한적 존재라는 사실도 직시하며, 불확정, 무궤도, 불안, 의혹의 상황도 회피하지 않으려니와, 그 도전에 응전함에서 겪을 수도 있는 비애, 고통을 도리어 삶의 보다 높고 깊은 뜻으로 승화 시킬 수 있는 자아실현의 조건으로서 수락한다(정범모, 1997).

Shostrom(1976)은 자아실현이란 자신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며, 잠재력은 창의적으로 표현되고 효과적으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충족된 삶을 살 수 있는 개인의 궁극적인 능력으로 설명되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통계적 개념으로서, 마슬로우가 상위 1%의 사람들만을 자아실현인이라고 하였으나, Shostrom은 정상분포곡선에서 상위 5% 내에 속하는 사람을 자아실현인이라고 보았다. 둘째, 과정의 개념으로서, 자아실현은 본래의 자기 자신이 되어 가는 과정으로서, 이는 종착점이 아닌 일상의 가식적인 자신으로부터 성

장, 발전하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자아실현은 성공적인 상담, 수업, 인간관계에서 일어난다.

셋째, 순간적인 상대적 개념으로서, 마슬로우가 말하는 절정경험과 같은 의미이다.

넷째, 윤리적 개념으로서, 선과 악의 기준은 진정한 자기를 성취하느냐의 여부에 따르고, 자기의 잠재력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을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다섯째, 모형적 개념으로서, 교육적 상담모형을 지향한다. 의학적 모형은 환자가 정상인이 되도록 하는 반면에 자아실현은 정상인을 더욱 건강하도록 한다.

자아실현에 관한 선행연구의 고찰은 다음과 같다. 출생순위에 따른 자아실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첫째와 막내가 중간 출생자보다 자기수용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전반적인 하부요인에서 중간 출생자가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이광자, 1976). 반면에 박윤수(1987)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종교유무에 따른 자아실현은 무종교 집단이 실존성이 높았고(이광자, 1976), 정현숙(1984)의 연구에서는 무종교 집단이 자아실현성이 높았다.

간호사의 자아실현정도와 직무만족도의 상관성 연구에서 순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고(정현숙, 1984), Maslow(1970)는 자아실현 즉 성취감의 정도가 만족수준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Barley(1969)의 간호대학생의 자아실현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연구에서 2, 3, 4학년 전체 학생의 전공과목 성적과 자아실현 검사의 각 요인과의 관계는 자아실현성에 있어 순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정신간호학 과정의 경험이 시간효율성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으나 내적지향성을 의미있게 증가시키고 POI의 기타 10개 범주 또한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으며(Mealey, A. R. & Peterson, T. L., 1974). 정신과 실습과정과 자아실현에 관한 연구에서 이광자(1976)는 임상실습 후에 측정한 자아실현 성취도 중에서 유의하게 높아진 척도는 시간효율성, 내부지향성, 자기가치감, 인간관, 포

용성이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다음은 중재 후의 자아실현성을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Treublood McHolland (1971)는 '인간잠재력' 집단과정이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자아실현이 될 수 있도록 돋는 효과를 보고했다. Nemeck(1972)은 학점평균이 하위집단에 속하는 대학생에게 잠재력을 키워 가는 집단상담을 실시한 후 자아실현검사 점수와 학점평균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이 집단상담을 받은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교하여 볼 때 자아실현검사의 하위변인 중에서는 자기긍정성, 감수성, 포용성에서 의미 있는 증가를 보였다. 인간잠재력 세미나에 등록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내부지향성, 자아실현성, 실존성, 자기긍정성, 인간간의 척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설기문, 1988).

김미자(1983)는 집단상담과 자아실현의 연구 결과 집단 상담을 받은 학생들은 받기 전보다 자아실현도가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문헌에서, 사회봉사의 경험과 자아실현은 중요한 관계가 있으며, 종교, 출생순위, 학업성취, 교육의 정도, 직무만족도, 집단상담 경험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사회봉사교과목의 경험과, 일반적 특성 중에 학업성적, 종교유무가 자아실현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사회봉사를 참여하기 전 자아실현검사를 실시하고, 사회봉사 이론교육과 지역사회 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후 다시 자아실현검사를 실시한 단일군 전후설계(one-group pretest-post test design)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S대학 간호과 1학년에 재학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사회봉사 과목을 선택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 학생들이다.

3. 연구 도구

(1) 자아실현 도구

Maslow와 Goldstein의 자아실현 개념에 기초하여 Shostrom이 개발 제작한 Personal Orientation Inventory(POI)를 김재은, 이광자(1977)가 번안 수정하여 작성한 표준화된 한국판 자아실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서로 대조되는 가치를 나타낸 진술문을 짹지은 1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조되는 두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측정요인은 시간척도와 지향척도로 대별되는데, 시간척도는 시간효율성과 시간비효율성으로, 지향척도는 내부지향성과 외부지향성으로 나뉜다.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다시 자아실현성, 실존성, 감수성, 자발성, 자기긍정성, 자기수용성, 인간관, 포용성의 8개 하위척도로 나뉘어져 모두 10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의 신뢰도는 반분신뢰도로 하위검사에 따라 Cronbach's $\alpha = .60 - .88$ 이었고(이소우와 박명자, 1987), 엄과 하(199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고, 하(199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5$ 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Spearman-Brown의 수정공식에 의해 수정하여 산출한 것으로 검사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시간효율성은 0.73, 자기지향성 0.85, 자아실현성 0.66, 실존성 0.72, 감수성 0.70, 자발성 0.60, 자기긍정성 0.60, 자기수용성 0.64, 인간관 0.60, 포용성 0.64이다.

이 검사의 규준은 Percentile과 T척도 C척도의 3가지 점수로 파악할 수 있는데, T점이 50이상(P점 50, C점 5)이면 그러한 경향이 높은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아 비교적 자아실현을 향해 충분히 효과적으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50미만이면 개인적인 자아실현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자신을 실현할 수 있게 가치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T점이

43에서 57사이(C점은 4~6, P점은 25~75)인 경우는 정상으로 보며, T점이 43이하(C점은4이하, P점은 25이하)인 경우는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경향이 많으므로 생활지도와 상담, 치료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 요인별 척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시간효율성/비효율성(Time competent /Incompetent ; TC) (23문항) :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를 중심으로 과거지향성과 현재지향성 혹은 미래지향성으로 구별하여 측정한다. 이 점수가 높으면 비교적 현재 지향적으로 시간을 유용하고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며, 현재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해 과거와 미래를 통해 현재에서 충실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점수가 낮으면 과거지향적이거나 미래지향적으로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 2) 내부지향성/외부지향성(Inner directed /Outer directed ; I) (107문항) : 한 개인의 행동양식이 자신을 향해 있는지 타인을 향해 있는지를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이 점수가 높으면 내부 혹은 자기 지향적인 사람으로서 주로 자신의 내면적인 원리나 동기에 입각하여 행동한다. 점수가 낮은 사람은 외부 혹은 타인 지향적인 사람으로서 대부분 동료나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8개의 하위척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3) 자아실현성 (Self actualization values ; SAV) (22문항) :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높은 점수는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긍정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낮은 점수는 부정하는 사람임을 암시한다.
- 4) 실존성 (Existentiality ; EX) (23문항) : 자아실현을 보충하는 척도로서 실존성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치나 원칙을 적용하는데 융통성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원칙 적용에 대하여 융통성이 있음을 나타내 주며, 반대로 이 점수가 낮으면 원리원칙이나 가치에 강하게 집착하여 강박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임을 나타낸다.
- 5) 감수성 (Feeling reactivity ; FR) (21문항) : 이 점수가 높으면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함을 나타내며 반대로 이 점수가 낮으면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함을 나타내 준다.
- 6) 자발성 (Spontaneity : S) (16문항) : 이 점수가 높으면 자발적인 행동으로 감정표현을 하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며, 낮으면 자기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알려준다.
- 7) 자기긍정성 (Self regard ; SR) (15문항) : 이 점수는 자존감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 점수가 높으면 자기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할 인물로 생각하여 자존감이 강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낮은 점수는 자기를 무가치한 쓸모 없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8) 자기수용성 (Self acceptance : SA) (25문항) : 이 점수가 높으면 자신이 약하고 결점이 많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점수가 낮으면 자신의 나약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9) 인간관 (Nature of man, Constructive ; NC) (10문항) : 이 척도는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는 가를 알아보는 척도로서 높은 점수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보는 것을 뜻하며 인간의 본성에 있는 선과 악, 남성과 여성, 이기주의와 애타주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양극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임을 뜻한다.
- 10) 포용성 (Capacity for intimate contact ; C) (22문항) : 이 점수가 높으면 타인과 인간 관계를 어떤 기대나 의무감 없이 의미 있고 친근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낮으면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일반적인 특성 질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

제상태, 학업성적, 사회봉사·학점부여에 대한 견해, 사회봉사 경험유무와 관련된 사항은 연구자가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4.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방법

1998년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사회봉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연구자가 작성한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의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구하고 자아실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봉사 이론교육 2시간, 지역사회 복지시설에서 격주로 1회당 3시간씩 5회(총15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후인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다시 설문조사와 자아실현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여 대상자들이 자가보고 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 및 자아실현검사지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사전-사후 조사 중 한가지만 응한 경우는 제외시키고 응답에 충실한 167명의 결과만을 통계처리 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사회봉사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자아실현정도와 지방여대생 표준집단과의 비교는 t-test로 분석하였다.
- 2) 사회봉사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자아실현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봉사활동 전·후 자아실현정도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 1) 본 연구의 대상이 일 대학에 재학 중인 일부 학생이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
- 2) 사회봉사가 교양선택과목이나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수강 신청하였으므로 통제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사회봉사 교과목의 영향만으로 결정짓기는 어렵다.

로 결정짓기는 어렵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경제상태는 보통(86.2%)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 학업성적은 중간이고(65.5%), 친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으며(90.4%), 주거형태가 자가(75.4%)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종교를 가지고 있고(62.7%), 이전에 자원봉사활동경험이 없으며(79.5%), 문화답사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54.5%)이 선택한 경우보다 더 많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분포 (N=167)

일반특성	빈도 (%)
경제상태	
보 통	144 (86.2)
어려움	23 (13.8)
학업성적	
상	23 (13.8)
중	108 (64.7)
하	36 (21.5)
친부모 생존여부	
친부·친모	151 (90.4)
계부·계모	3 (1.8)
편친부모	13 (7.8)
주거형태	
자 가	126 (75.4)
자 취	35 (21.0)
기 타	6 (3.6)
종교유무	
유	104 (62.3)
무	63 (37.7)
자원봉사활동경험 유무	
유	34 (20.4)
무	133 (79.6)
문화답사과목 선택여부	
선택함	76 (45.5)
선택하지 않음	91 (54.5)

2. 대상자의 사회봉사관련 의견

<표 2> 사회봉사활동 관련 의견분포 (N=167)

일반특성	빈도	(%)
자원봉사활동경험이 없는 이유		
잘몰라서	43	(32.3)
관심이 없어서	18	(13.5)
기회가 없어서	61	(45.9)
시간이 없어서	11	(8.3)
자원봉사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29	(21.8)
조금	101	(75.9)
없음	3	(2.3)
사회봉사학점화에 대한 견해		
매우 바람직하다	33	(19.8)
조금 바람직하다	79	(47.3)
바람직하지 않다	52	(31.1)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3	(1.8)
사회봉사 수강신청에 대한 견해		
매우 잘했다	61	(36.5)
잘한 편이다	98	(58.7)
잘못한 편이다	8	(4.8)
대학이 사회봉사를 해야하는 이유		
소외층의 권익옹호	6	(3.6)
공익시민단체의 활동지원	7	(4.2)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	128	(76.6)
사회참여에 의한 사회개혁	26	(15.6)
대학이 참여해야할 사회봉사영역		
노인·아동·장애인 등 소외층	138	(82.6)
농어촌 또는 지역봉사	16	(9.6)
비영리공익시민단체 지원봉사	9	(5.4)
국제단체·국제사회 봉사	1	(0.6)
정부공공기관 행정지원봉사	2	(1.2)
기타	1	(0.6)
사회봉사학점제에 대한 의견		
학점이 없어야 한다	63	(37.7)
현행 1학점 유지가 좋다	83	(49.7)
2학점으로 높여야 한다	21	(12.6)

대상자의 사회봉사관련 의견분포는 <표 2>와 같다. 자원봉사활동경험이 없는 이유는 기회가 없고(46.2%), 잘 몰라서(31.08%)인 경우가 많았

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75.9%)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회봉사학점화에 대한 의견분포는 조금 바람직하다(47.3%), 바람직하지 않다(31.1%), 매우 바람직하다(19.8%)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사회봉사 수강신청에 대한 견해는 잘한 편이다(58.7%), 매우 잘했다(36.5%)의 분포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을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이 사회봉사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을 위해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76.6%), 다음은 사회참여에 의한 사회개혁을 위해서라는 의견이었다(15.6%). 대학이 참여해야 할 사회봉사영역으로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소외층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82.6%). 사회봉사학점제에 대해서는 현행 1학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49.1%), 학점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37.7%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사회봉사 경험 전·후와 지방여대생 표준집단의 자아실현정도 비교

대상자의 사회봉사 경험 전과 후의 자아실현정도와 지방여대생 표준집단을 비교한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사회봉사 경험 전에 대상자가 지방여대생 표준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인간관이었으며($t=5.27$, $P<.001$),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감수성($t=-2.00$, $P<.05$)과 포용성($t=-3.73$, $P<.001$)이었다.

사회봉사 경험 후에는 자아실현성($t=5.00$, $P<.001$), 실존성($t=2.61$, $P<.01$), 자발성($t=2.60$, $P<.01$), 자기수용성($t=2.22$, $P<.05$), 인간관($t=4.07$, $P<.001$)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봉사활동 경험 전과 후의 자아실현 정도의 비교

사회봉사활동 경험 전과 후의 자아실현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한 결과

<표 3> 사회봉사 경험전과 지방여자대학생 규준집단의 자아실현정도 비교

	사회봉사 경험전 (N=167)				지방여대생 규준치 (N=177)				t값
	Mean±SD	P	T	C	Mean±SD	P	T	C	
Tc (현대지향성)	12.83±3.30	33	48	4.3	12.84±2.71	33	48	4.3	-0.03
I (내부지향성)	60.92±7.87	33	48	4.3	61.92±8.30	34	49	5.1	-1.23
SAV (자아실현성)	15.74±2.75	53	53	5.3	15.23±2.66	51	51	5.1	0.70
EX (실존성)	12.22±2.84	51	51	5.1	11.84±3.04	49	49	4.9	1.29
FR (감수성)	11.90±2.53	34	49	4.3	12.38±2.28	35	51	4.5	-2.00 *
S (자발성)	9.10±2.47	51	51	5.1	9.00±2.25	50	50	5.0	0.42
SR (자기긍정성)	8.86±2.10	34	50	4.4	9.00±2.40	35	51	4.5	-0.58
SA (자기수용성)	12.59±2.48	53	53	5.3	12.16±2.67	51	51	5.1	1.67
Nc (인간관)	7.49±1.24	54	54	5.4	6.72±1.64	48	48	4.8	5.27 **
C (포용성)	10.51±2.88	33	47	4.2	11.61±3.02	36	52	4.6	-3.73 **

* P<.05 ** P<.001

는 <표5>와 같다. 대상자의 자아실현점수는 대부분의 척도에서 사회봉사경험 전·후 모두 T점 45-55(C점4-6)으로 정상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 활동을 하기 전에 비해 봉사활동 후에 유의하게 높아진 것은 현대지향성 ($t=2.24$, $P<.05$), 내부지향성($t=5.28$, $P<.001$), 자아실현성($t=5.21$, $P<.001$), 실존성($t=2.12$, $P<.05$), 감수성($t=4.56$, $P<.001$), 자발성($t=3.27$, $P<.01$), 포용성($t=3.77$, $P<.001$) 등이었으며, 자기긍정성, 자기수용성, 인간관은 유의한 수준은 아니

었으나 점수의 증가를 나타냈다.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봉사관련 의견에 따른 자아실현정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실현정도를 보면, 사회봉사활동 전에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감수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22$, $P<.05$). 교육과정 중 문화답사과목을 선택한 경우에 자아실현성($t=2.08$, $P<.05$)과

<표 4> 사회봉사 경험후와 지방여자대학생 규준집단의 자아실현정도 비교

	사회봉사 경험후 (N=167)				지방여대생 규준치 (N=177)				t값
	Mean±SD	P	T	C	Mean±SD	P	T	C	
Tc (현대지향성)	13.26±2.47	51	51	5.1	12.84±2.71	33	48	4.3	1.62
I (내부지향성)	63.50±8.57	51	51	5.1	61.92±8.30	34	49	5.1	1.87
SAV (자아실현성)	16.56±2.65	55	55	5.5	15.23±2.66	51	51	5.1	5.00 ***
EX (실존성)	12.64±3.09	53	53	5.3	11.84±3.04	49	49	4.9	2.61 **
FR (감수성)	12.72±2.56	53	53	5.3	12.38±2.28	35	51	4.5	1.41
S (자발성)	9.63±2.59	54	54	5.4	9.00±2.25	50	50	5.0	2.60 **
SR (자기긍정성)	9.13±2.14	51	51	5.1	9.00±2.40	35	51	4.5	0.57
SA (자기수용성)	12.77±2.84	53	53	5.3	12.16±2.67	51	51	5.1	2.22 *
Nc (인간관)	7.59±1.34	54	54	5.4	6.72±1.64	48	48	4.8	4.07 ***
C (포용성)	11.23±2.90	47	47	4.7	11.61±3.02	36	52	4.6	-1.28

* P<.05 **P<.01 ***P<.001

<표 5> 사회봉사활동 경험 전과 후의 자아실현 정도의 차이

	사회봉사 경험 전 (N=167)			사회봉사 경험 후 (N=167)			t값		
	Mean±SD	P	T	C	Mean±SD	P	T		
Tc (현대지향성)	12.83±3.30	33	48	4.3	13.26±2.47	51	51	5.1	2.24 *
I (내부지향성)	60.92±7.87	33	48	4.3	63.50±8.57	51	51	5.1	5.28 ***
SAV (자아실현성)	15.74±2.75	53	53	5.3	16.56±2.65	55	55	5.5	5.21 ***
EX (실존성)	12.22±2.84	51	51	5.1	12.64±3.09	53	53	5.3	2.12 *
FR (감수성)	11.90±2.53	34	49	4.3	12.72±2.56	53	53	5.3	4.56 ***
S (자발성)	9.10±2.47	51	51	5.1	9.63±2.59	54	54	5.4	
SR (자기긍정성)	8.86±2.10	34	50	4.4	9.13±2.14	51	51	5.1	1.64
SA (자기수용성)	12.59±2.48	53	53	5.3	12.77±2.84	53	53	5.3	0.91
Nc (인간관)	7.49±1.24	54	54	5.4	7.59±1.34	54	54	5.4	0.81
C (포용성)	10.51±2.88	33	47	4.2	11.23±2.90	35	51	4.5	3.77 ***

* P<.05 **P<.01 ***P<.001

자기긍정성($t=3.25$, $P<.01$)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 이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봉사활동 후에는 종교가 없는 집단에서 인간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20$, $P<.05$).

V. 논 의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해석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자아실현정도는 사회봉사 전과 후에 모두 정상범주에 포함되며, 대상집단과 지방여대생 표준집단의 자아실현정도 비교에서 사회봉사 전에는 대상집단이 표준집단보다 인간관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연구대상 집단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보며 인간의 본성에 있는 선과 악, 남성과 여성,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양극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임을 뜻한다. 한편 표준집단보다 감수성, 포용성의 척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대상집단이 표준집단보다 자신의 욕구나 감정에 덜 민감하게 반응함을 나타내며, 포용성이 낮아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회봉사 후에는 대상집단이 표준집단 보다 자아실현성, 실존성, 자발성, 자기수용성, 인간관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척도

에서도 포용성만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 집단의 사회봉사활동 전과 비교해 보면, 사회봉사활동 후에 자아실현검사 하위척도 10개중 7개, 즉 현대지향성, 내부지향성, 자아실현성, 실존성, 감수성, 자발성, 포용성척도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3개 척도, 즉 자기긍정성, 자기수용성, 인간관에서는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증가를 나타냈다. 이것은 대상집단이 사회봉사를 경험한 후에 자아실현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시간성에서 비교적 현재 지향적으로 시간을 유용하고 가치 있게 쓰며, 현재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해 과거와 미래를 통해 현재에서 충실히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중심부는 현재이며 배경은 과거와 미래인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지향성에서는 내부 혹은 자기 지향적인 사람으로서 주로 자신의 내면적인 원리나 동기에 입각하여 행동한다. 자아실현성이 높아져 자아실현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긍정하게 되었고, 실존성이 높아져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가치나 원칙을 적용하는데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수성이 높아져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함을 나타내며, 자발성이 증가해 자발적인 행동으로 감정표현을 하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며, 포용성이 높아져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어떤 기대나 의무감 없이 의미 있고 친근하게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사회봉사교과목 경험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실현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김남순(1997)이 진술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의 개인적 가치는 자신의 존재가치와 의미를 찾게 해준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나누어줌으로써 학습의 보람과 가치를 느낀다. 새로운 학습의 욕구를 창출해 낸다. 봉사자의 자존의식과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개인이 인격적 성숙과 발전의 바탕을 마련해 준다. 자증자애 할 수 있고, 가까운 가족에 대한 애정이 강해진다.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좋은 장을 마련해 준다. 스스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맛보도록 한다. 일상생활에서 즐겁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또한 사회봉사가 자아를 실현하는 귀중한 삶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며(양참삼, 1997), 대학생 사회봉사활동이 자아실현을 피하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원만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교과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주성수, 1997)을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여러 연구에서 간호교육의 고유한 과정이 간호학생들의 자아실현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Mealey, A. R. & Peterson, T. L., 1974), 본 연구결과에서 대부분의 자아실현 하위척도가 단지 사회봉사후에 증가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Sobel(1978)은 간호학생의 자아실현정도가 임상실무의 수행전 평가와 시험전 스트레스를 서로 다르게 지각하게 하는 한 요인임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입생의 교정 및 과정선택에 적용할 수 있으며 학사간호교육과정 측정에 통합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자아실현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잠재력 세미나(True-blood & McHolland, 1971), 마라톤 집단(Young & Jacobson), 일반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기 및 타인 이해, 피드백 주고받기, 공감형성 및 경청하

기, 자기노출, 감수성 훈련(구본용, 1986)등이 보고된 바 있으며, 집단상담(김미자, 1983), 인간잠재력세미나(설기문, 1988)등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자아실현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모색 및 효과나 과정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실현정도의 차이를 보면, Barley(1969), 및 박순자(1976)의 간호대학생의 자아실현과 전공과목 성적과 자아실현 검사의 각 요인과의 관계는 자아실현성에 있어 순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에 따른 자아실현은 종교를 가진 집단에서 사회봉사 전에는 감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봉사 후에는 인간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교집단이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하며,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보는 것을 뜻한다. 이팡자(1978)는 무종교집단에서 실존성이 높고 정현숙(1984)은 무종교집단에서 자아실현성이 높게 나타나 종교에 따라서는 결과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교양선택과목으로서 강의와 세 번의 현장답사로 이루어지는 문화답사과목 선택여부와 자아실현 검사의 각 요인과의 관계는 사회봉사 활동 전에는 문화답사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자아실현성, 자기 긍정성이 더 높아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자아실현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긍정하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나 사회봉사활동 후에는 문화답사과목 선택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덧붙여서, 사회봉사활동 후 사회봉사활동 관련 의견을 살펴보면 사회봉사활동 전에는 질문하지 않아 변화여부를 알 수는 없으나 그 동안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없는 이유로 '기회가 없어서' '잘 몰라서' 라고 대답한 학생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대학이 사회봉사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는 한양대 사회봉사단 (1997)이 '사회봉사' 교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결과와도 일치

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봉사 학점화에 대한 견해는 많은 학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37.7%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수강 신청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이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교당국과 봉사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학과 전공과목에 사회봉사를 통합하거나, 학생회/동아리 사회봉사, 자치활동 정립 등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봉사 교과목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경험이 그들의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학의 바람직한 사회봉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일 간호대학생 중 교양선택인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를 시작하기 전과 2시간의 사회봉사 이론교육을 받고 지역사회 복지시설에서 격주로 1회당 3시간씩 5회(총15시간)의 봉사활동을 마친 후에 각각 자아실현 검사를 실시한 단일군 전후설계(one-group pretest-post test design)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requency, t-test, paired t-test, ANOVA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전 연구대상자의 자아실현 정도는 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여대생 표준집단과의 비교에서 사회봉사 전에는 인간관 척도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1$), 감수성($P<.05$)과 포용성($P<.001$)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봉사 후에는 자아실현성($P<.001$), 인간관($P<.001$), 실존성($P<.01$), 자발성($P<.01$), 자기수용성($P<.05$)의 척도에서 표준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연구대상집단의 사회봉사활동 전과 후의 자아실현 정도는 자아실현검사 하위척도 10개중 7개 척도인 내부지향성($P<.001$), 자아실현성($P<.001$), 감수성($P<.001$), 포용성($P<.001$), 자발성($P<.01$), 현대지향성($P<.05$), 실존성($P<.05$)이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나머지 3개 척도인 자기긍정성, 자기수

용성, 인간관은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점수의 증가를 나타냈다.

따라서, 사회봉사활동이 자아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대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사회봉사 교과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기관에서의 봉사활동 후 자아실현정도를 조사하였으나 대학생 수준에 맞는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험하도록 한 후 자아실현정도를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 자아실현을 위하여 각 대학에서 사회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3) 대학생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봉사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고자경 (1983).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간호학회지, 13(2), 22-43.

김남순 (1997). 사회 자원봉사활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교육과학사.

김미자 (1983). 여고생의 자아실현을 돋는 방안으로 서의 집단상담. 이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정 (1998). 자원봉사활동과 시험이 포함된 교과과정이 일 간호전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Immunoglobulin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 37(1), 81-96.

김영정 외 (1985). 자원봉사활동과 사회발전. 서울:한국여성개발원.

문인숙 (1984). 자원봉사활동의 이론적 배경(편집), 자원활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박윤수 (1987). 자아정체감과 적응력 및 자아실현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설기문 역 (1988). 자아실현검사의 이해와 활용. 서울:중앙적성출판사.

양창삼 (1997). 사회봉사의 철학과 기초. 한양대

- 학교(편집). 대학의 사회봉사. 서울:한양대학교 출판원.
- 엄미란, 하양숙 (1993). 간호대학생의 자아실현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2권, 23-38.
- 이광자 (1976). 정신과간호 실습과정과 자기실현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6(1), 29-40.
- 이태영, 서석달 공역 (1982). 불린티어 활동. 대구:대구대학교 출판부.
- 정범모 (1997). 인간의 자아실현. 서울:나남출판사.
- 정현숙 (1984). 간호원의 자아실현성의 정도와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일 (1998).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서울: 홍익제주성수 (1997). 대학의 사회봉사 : 배경, 현황 및 전망. 한양대학교(편집). 대학의 사회봉사. 서울:한양대학교 출판원.
- 하양숙 (1994). 간호전문대학생의 자아실현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4(3), 499-510.
- 최정훈 (1971). 지각심리학. 서울:을유문화사.
- 한영란 등 (1999). 간호대학생의 사회봉사활동 후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의 변화.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0(1), 204-226.
- Barley, J. T., & Oleus, K. E. (1969).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ersonality Structure of Nursing Students. Nursing Research, 18, 320-326.
- Maslow, A. H.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York : Harper & Row.
- Mealey, A.R. & Peterson, T.L. (1974). Self-Actualization of Nursing Students Resulting from a Course in Psychiatric Nursing. Nursing Research, 23(2), 138-143.
- Nembeck (1972). A Study of the effect of the HPS on the Self-actualiz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the college underachievers. Dissertation Abstracts, 32, 6766-a.

Sobol, E. G (1978), Self-Actualization and the Baccalaureat Nursing Students Response to Stress, Nursing Research, 27(4), 238-244.

-Abstracts-

Key concept : Voluntary program, Self-actualization

A Study on the Changing in Self-actualiza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fter a Voluntary Program.

*Park, Hoo Nam · Choi, Young Ae**

The Effect of Curriculum with voluntary program on Self-Actu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voluntary program experience with curriculum on self-actualiz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o guide the desirable voluntary activity of college students.

The research design utilized in this study was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 data were gathered two times with self-actualization test. First data were gathered before voluntary activity. And second data were gathered after instruction and five times voluntary activ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t-test, paired t-test and ANOVA using the SAS program.

* Department of Nursing, Sunchon Chongam Colleg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scores of self-actu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belonged to normal range. Before voluntary activity, the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standardized group in Nature of Man, Constructive Scale ($P<.001$), and the score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standardized group in Feeling Reactivity Scale($P<.05$) and Capacity for Intimate Construct Sscale ($P<.001$).

After the activity, the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standardized group in Self Actualizing Values Scale($P<.001$), Existentiality ($P<.01$), Spontaneity Scale ($P<.001$), Self Acceptance Scale($P<.05$) and Nature of Man, Constructive Scale ($P<.001$).

After the activity the scor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more than before the activity in Inner Directed Scale ($P<.001$), Self Actualizing Values Scale ($P<.001$), Feeling Reactivity Scale ($P<.001$), Capacity for Intimate Construct Sscale

($P<.001$), Spontaneity Scale ($P<.01$), Time Competent Scale ($P<.05$) and Existentiality ($P<.05$). And the scores were not significantly increased more than before the activity in Self Regard Scale, Self Acceptance Scale and Nature of Man, Constructive Scal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voluntary activities were effective self-actualization. So, it is thought that voluntary program is necessary in the curriculum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 1) It is necessary to inspect the self-actualization test after various experience of voluntary activity in college students.
- 2) It is necessary to grope the plans to activate the social service programs.
- 3) It is necessary to study continious and voluntary social service of college students.